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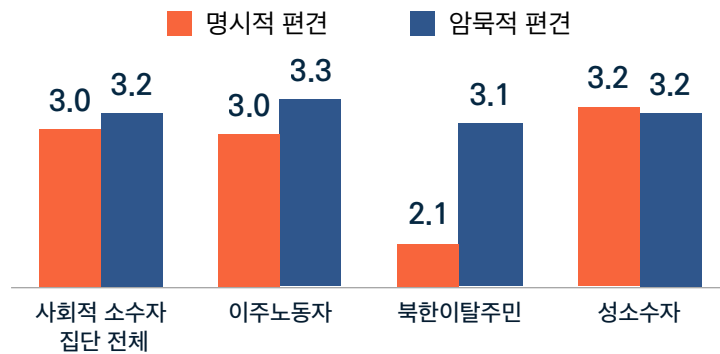
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

1

우리 국민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,
명시적 편견은 '성소수자', 암묵적 편견은 '이주노동자에게서 가장 높음'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말에 펴낸 「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보고서」에 따르면, 한국인은 사회적 소수자 중 '성소수자'에 대해 '명시적 편견'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, '암묵적 편견'은 '이주노동자'에 대해 가장 높게 나타남
- * **명시적 편견**은 그 대상을 향한 명확한 편견을 지닌 태도나 생각을 말하며(예 : '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'), **암묵적 편견**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실상 자신도 모르게 온정적이거나 우월감에 기초한 편견을 지닌 것을 말함(예 : '이주노동자들은 보통의 한국인처럼 열심히 일한다')

[그림]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정도 (5점 만점, 평균) (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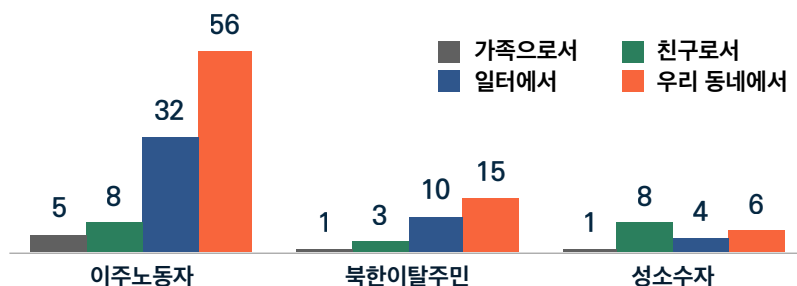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자료 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'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', 2019.12 (전국 19세 이상 남녀,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19.10.21.-27)

● 우리 국민 절반 이상, 이주 노동자 '동네에서 만났다'

-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직접 접촉 경험에 대해, '이주노동자'에 대한 접촉도가 가장 높았고, 이어 '북한이탈주민', '성소수자' 순으로 나타남
- '우리 동네에서 만났다'는 응답은 '이주노동자'가 56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'성소수자'의 경우는 다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접촉도가 낮게 나타났지만, '친구로서 만났다'는 비율은 8%로 가장 높는데, 이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성 지향성이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

[그림] 사회적 소수자와 직접 접촉 경험 (%)



*자료 출처 : 자료 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'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', 2019.12 (전국 19세 이상 남녀,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19.10.21.-27)